

## 우산고로쇠 (아오카 우리하다카에데) 단풍나무과

나무 껍질의 색깔이 마침 마쿠와우리(참외) 열매의 껍질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이른 봄, 잎의 싹이 트는 것과 함께 축제 꽃(스모 꽃)을 연상시키는 듯한 특징 있는 꽃을 피웁니다. 또한 이 나무의 껍질은 깨끗하게 벗겨지고 튼튼하고 아름다워서 도롱이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.